



기고

에이즈 감염여성의 윤락행위로 세상이 떠들썩 하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지금 책임공방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본회 이창우 사무국장의 기고가 한 월간지에 실렸다.

에이즈보다 무서운 것



이창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무국장

'에이즈 여성' 이 감염사실을 숨긴 채 떠돌이 생활을 하며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은 '에이즈 비상령' 이라도 내려진 듯 한바탕 흥역을 치르고 있다. 각 보건소와 병원은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남성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등 에이즈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언론은

'감염여성과 접촉한 남성이 수백명에 달한다' '절반이상이 콘돔을 쓰지 않았다' 며 선정적인 보도로 공포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감염여성에 대한 손가락질과 함께 "어떻게 그런 여자를 2년 가까이 확보하도록 놔뒀느냐"며 보건당국의 허술한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 여성이 전파시켰을 에이즈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다시 감염 전 상태로 복귀할 수는 없다. 물론 에이즈 감염인은 잘 관리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당국의 에이즈 관리 문제로만 둘러서는 안 된다.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선이 있는 한 제2, 제3의 '에이즈 매춘' 이 발생할 위험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는 성 관계이다. 그것이 감염인을 죄인 취급하고 색안경 끼고 보게 하는 이유다. 그러나 실제 에이즈는 반드시 난잡한 행위를 해서 걸리는 것은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감염되는 경우도 허

다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죽음보다 '죽어도 싸다' '그럴만한 행동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 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은 감염사실을 통보받는 순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에서 감염인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고 치료비는 커녕 검사비조차 버겁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출은 했지만 모든 이에게서 소외되고 비난 받고 살기도 어려운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이들을 받아주고 도와주지 못한 우리 모두가 제 2의, 제 3의 구(具)모 여인을 만든 범인일 수도 있다. 우리의 친구, 이웃, 가족일 수 있는 감염인들을 인정해주고 어려움을 들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며 스스로 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에이즈 감염인의 윤락행위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문제는 관심이 없다. 정부가 최근 에이즈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지원을 중단한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된 이들을 궁지에 모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에이즈 감염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그들을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프랑스 지탄등 월드스타 45명이 월드컵을 앞두고 에이즈 극복 의지를 노래한 공식음반을 녹음한 참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각자가 스스로 편견을 걷어내고 에이즈감염인들을 향해 손을 뻗어보자. 에이즈 바이러스는 감염인의 혈액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다.

(경향신문 6월 15일 게재)